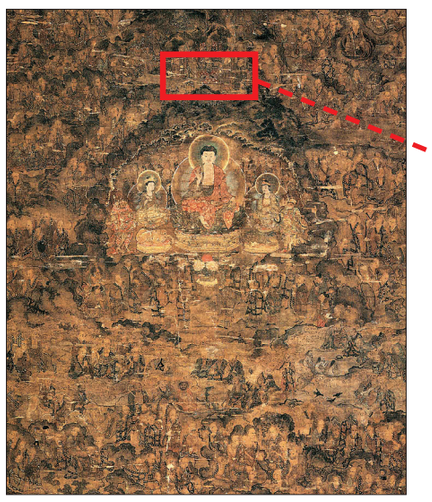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⑦ 오백나한도와 원효 대사



▶ 한줄 요약
일본 교토 지은원에 소장된 〈오백나한도〉의 석가삼존 도상 뒤에는 원효 대사 진영이 그려져 있다. 까무잡잡한 피부와 수염 등 인간미 넘치는 묘사는 해당 인물이 원효 대사임을 알게 해주는 특징이다.

오백나한 한 가운데 원효대사 '우뚝'



그림①



그림②

日교토 지은원 소장 〈오백나한도〉
석가삼존 뒤 원효 대사 진영 담겨
까만 피부, 수염 등 인간미 묘사
삼원법 활용한 산수 표현들 '압권'

그림① 일본 교토 지은원 소장 〈오백나한도〉의 중심 부분. 고려시대에 조성됐다.

그림② 원효 대사 진영. 〈오백나한도〉의 석가삼존 뒤편에 그려져 있다. 까만 피부, 수염 등 인간미 넘치는 표현은 해당 인물이 원효 대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백나한 물결치는 파노라마

〈오백나한도〉를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산세 풍경은 무수한 나한들로 해체되어 버린다. 그리고 다시 뒤로 물러나면, 제 각각 개성 넘치는 나한들은 배경으로 융해되어 버린다. 산봉우리가 나한이고 나한이 산봉우리다. 고려불화 〈오백나한도〉는 길이 2미터에 달하는 대작으로, 독특한 구도와 기상천외한 형식으로 이름 높다. 중국 남송 시대에 대유행한 나한신앙은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에서 두루 유행하여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지만, 오백나한을 한 폭에 모두 그린 것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 또 구도적 측면에서, 산수를 배경으로 불교적 내용을 앉혔다는 점에서, 〈관세음보살32응신도〉(조선 전기 제작, 교토 지은원 소장)에 필적하는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중앙에 그려진 '원효 대사' 진영

작품 한 가운데 크게 그려진 석가삼존과 위로, 붉은 비단 의자에 앉은 노스님이 보인다. 그런데 바로 원효 대사가 아닌가! 시커먼 피부, 확 올라간 눈꼬리, 턱 수염, 전형적인 원효 대사의 모습이다. 뭇 스님들이 원효 대사를 둘러싸고 합장 경배를 하고 있다. 원효 대사는 너무나 개성 강한 특징을 가졌기에, 많은 진영(고승의 초상화) 중에서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원효의 실제 용모와 가장 가까운 유일한 작품인 〈원효 진영〉(일본 교토 고산사 소장, 현재 교토국립박물관 기탁 보관)과 흡사한 모습이다.

〈원효 진영〉과 함께 소장되어 있는 〈의상 진영〉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으로 원효대사의 특징이 드러난다. 의상은 뽀얀 피부에 훤칠한 이목구비, 고급스런 비단 금 가사에 부드러운 투명 장삼, 꿩 깃털 불자를 손에 들고 있다. 진골 귀족으로서의 우아한 풍모가 한껏 드러난다. 반면, 원효는 우선 까만 피부에 찢어진 눈, 지저분한 턱수염, 얼굴선도 반듯하지 않고 코와 입부분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 마치 감자와 같은 얼굴 형상이다. 희고 팽팽한 의상 스님의 피부와는 대조적으로 새까만 피부에 이마에는 세줄 주름이 기본이고 눈과 목까지 주름이 있다. 갈색 가사도 매우 소탈하다.

하지만, 그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총기와 주름 가득한 얼굴에서 묻어나오는 깊은 연륜, 그리고 방치된 수염에서 느껴지는 자유와 인간미. 이런 특징들은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어떤 고승의 진형보다 원효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들이다. 대략 요약하면, 까만 피부·눈꼬리가 올라간 날카로운 눈매·깍지 않은 수염·허름한 갈색 가사는 원효 대사의 전형적 특징으로 〈화엄종조사회전〉의 〈원효도〉(가마쿠라 시대, 일본 교토 고산사 소장)에서도 이 같은 특징을 고스란히 갖춘 원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까만 피부는 원효 대사의 전매특허다. 이러한 대사의 모습이 고려불화, 〈오백나한도〉 속에 있다니! 삼존불 바로 위의 정 중앙에 원효대사가 있고, 그 주변 좌우로 따로 구획되어 그려진 스님이 두 분이 더 계시다. 한 분은 토굴에서 홀로 명상에 잠겨있고, 나머지 한 분은 육환장을 들고 거대한 구렁이를 좌복 삼아 앉아 계신데, 아직 어떤 유명한 선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원효 대사는 고려시대에 원효보살 또는 원효성사라고 존칭되었다. 또 고려 숙종 때는 대성화쟁국사(大聖和諍國師)라는 시호가 내려질 만큼, 우리나라 고유 불교의 핵심인물로 '해동법사(海東法師)'로 일컬어지며 재조명 받았다.

곽희풍 산수, 수준 높은 삼원법

오백나한을 품고 있는 산수 배경은 매우 경이롭다. 특히 그림의 상단 부분을 보면, 아마추어로서의 산수가 아닌 본격적인 곽희풍의 산수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산수 아류로서의 (조선시대에 흔히 보는) 지방 화풍이 아니라, 본토를 능가하는 품격의 산수이다. 곽희의 '삼원법(三遠法)'이 유려하게 갖추어져 있다. 삼원법이란, 평원(平遠, 수평시)·고원(高遠, 앙시)·심원(深遠, 부감시)를 말하는데, 동양 산수의 근간이 되는 기법으로 곽희가 창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기존에 난무하던 다양한 형식과 양식의 표현 기법을 북송 화원 화가 곽희가 명료하게 통일하고 체계화했는데, 그 골자가 삼원법이다. 이 삼원법을 적절히 섞어 풍경을 그리면, 아무리 손바닥만 한 작은 화면이라도 천지를 담을 수 있는 깊이와 공간감이 생겨난다. 그래서 감상자는 천지를 한 눈에 보고 그 속으로 빨려드는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오백나한도〉의 산봉우리와 능선, 언덕과 계곡은 매우 그로테스크하다. 그 봉우리들 사이로 폭포가 흐른다. 그 스케일이 매우 장대함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데, 곽희의 대작인 〈조춘도(早春圖)〉를 연상케 한다. 〈오백나한도〉 속에는 〈조춘도〉에 못지 않는 삼원법의 진수가 구현되어 있다.

수행자 최고 목표 '아라한'

'오백비구'라는 용어는 니까야 경전, 특히 석가모니 붓다께서 상주하며 설법하신 제따나와 숲 등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법화경〉의 유명한 '오백제자수기품'에도 오백제자가 나온다. 또 오분율·사분율에 따르면, 스승 붓다의 입멸 후에 그 가르침이 잊혀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1차 결집이 이루어졌고, 이때 모인 제자들을 오백나한이라고 하고 있다. 오백나한은 붓다의 정법(正法)을 사수하고 전수하는 제자들 무리를 지칭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설법을 듣는 청중으로서, 그리고 그것의 전법자 또는 수호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대승불교의 나한 신앙은 일찍이 중국 남송 시대부터 성행하였는데, 나한이 독립적인 신앙대상으로 숭배될 때는 주로 십육나한이 채택된다. 이러한 독립적인 나한신앙의 유행은 십육나한의 이름과 주거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법주기(法住記)〉(당나라 현장법사 번역)에 근거한다. 나한 신앙은 십육나한에서 다시 오백나한으로 극대화된다. 명판(明版) 속장경에 수록된 '남송강음군건명원나한존호비'에선 오백나한 한 명 한 명의 존명을 찾아볼 수 있고, 이를 근거하여 무수한 나한도가 그려졌다. 하지만, 이미 언급하였듯이, 오백나한을 하나의 대형 화폭에 한꺼번에 그린 작품은 본 〈오백나한도〉가 유일무이하다.

초기 불전을 보면, 수행 제자들이 얼마나 아라한의 경지를 목표로 아라한과에 드는 것을 동경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금강경〉과 〈법화경〉에는 이러한 경향에 일침을 놓는 붓다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 그 일침의 내용은 '아라한과에 머물지 말고 성불(成佛), 부처님이 되라'는 것이다. 오백 제자에게 부처님이 수기(授記, 미래에 성불하게 되리란 계시)를 주신 이유. 바로 이것이다.

한 사람이 친한 벗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 그때 그 친한 벗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을 옷 속에 매어주었다. 그 사람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깨어나 유랑을 떠나 먼 나라에 이르렀다. 그는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며 온갖 고생을 다 겪은 터라 조그마한 것이라도 무조건 소득이 생기면 기뻐 날뛰며 거기서 만족을 구했다. 훗날 그 친한 벗이 우연히 다시 그를 만나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서글프다 친구여, 어찌 살기 위해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내가 예전에 네 안락함을 위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을 네 옷 속에 매어놓았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그것이 아직 네 몸에 있을 텐데 이를 알지 못하고 고생이 막심하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제 이 보석으로 필요한 것을 구할지니, 항상 원하는 바대로 되어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법화경〉 '오백제자수기품: 계주(繫珠)의 비유'

즉, '아라한'을 '조그마한 소득'에 비유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 즉 '불성(佛性)'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조그마한 이익에 묶여 안주한다고 지적한다. 부디, 아라한의 경지에 머물지 말고, 성불의 궁극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는 가르침이다. '나' 하나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이웃'까지 모두 구제하는 불보살이 되라고 설했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사찰명·직인 공고

◈ 사찰명 변경 ◈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사

→ 대한불교조계종 **덕산사**

상기 사찰은 불기 2565년(2021년) 3월 12일부로 사찰명을 변경하고 주지직인을 공고하오니 이전 직인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청 덕산사 **일광**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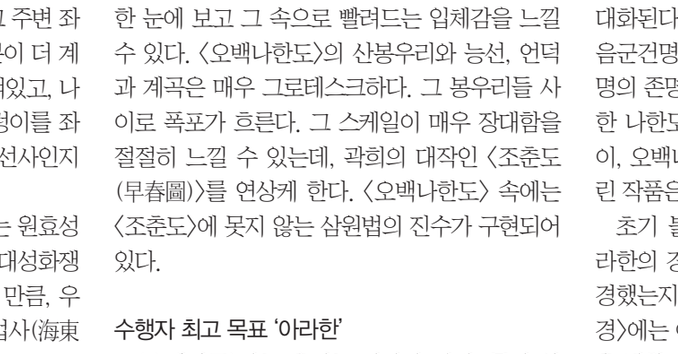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 내원로256

전화 055)973-6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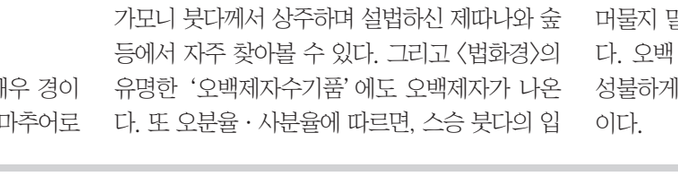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 연꽃칠성촛대 / 연꽃촛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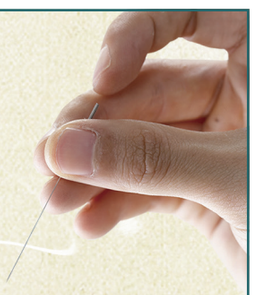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 연꽃 크리스탈 촛대

✻ 양초 보시 대행 ✻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우공침술 개인지도



우공침술의 TLS 침법은 근육의 통증유발점(trigger point)을 기계적으로 자극하여 몸의 통증을 멈추게 하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통증유발점을 기술적으로 자극하는 침법이므로 경락의 경혈들과는 무관한 과학화된 침법입니다. 따라서 통증치료에 관한한 TLS 침법이 단연 으뜸임을 자부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TLS 침법을 개인지도를 통해서 딱 6일 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딱! 6일 동안만 시간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TLS 침법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침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딱 6일 동안만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딱 6일 만에 고통스러운 통증은 물론, 많은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고 멋진 전문 침술인으로 변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우공침술원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완벽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지방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우공침술'을 치시면 저의 블로그에서 '신보선의 침의학과 건강·의학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10-4054-7110

우 공 침 술 연 구 원